

시론



이정록

전남대 교수·前 대한지리학회 회장

전남 낙도에 '젊은 어부 송상철'이 많이 나왔으면

도분교가 폐교돼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와 함께 목포로 유학을 갔다. 목포에서 초·중·고를 다녔다. 낙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도 '송상철의 길'을 걷고 있다. 신안의 작은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학교가 없어 지금도 목포로 유학하기 때문이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에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다.

송상철은 원래 어부가 아니었다. 화석과 천안에서 누구나 알만한 관공은 직장을 다녔지만 6년 전 직장 생활을 청산하고 제2의 고향인 낙도에서 어업을 부인에게 맡기고 고작잡이로 나섰다. 인턴 판매를 겸한 낙지 장사는 팬층이 많았다. 하지만 낙도에서 많이 하는 김 양식에 뛰어들기 위해 인터넷 판매를 겸한 낙지 장사는 팬층이 많았다. 하지만 낙도에서 많이 하는 김 양식에 뛰어들기 위해 인터넷 판매를 겸한 낙지 장사는 팬층이 많았다.

송상철은 전통과 환경을 중시하는 3년차 어부다. 12ha 면적에 지주식(支柱式)으로 김을 양식한다. 김 양식 방식에는 부유식(일명 부레식)과 지주식이 있다. 전자는 바다에 김발(줄)을 매달은 부표를 띄어 양식한다. 생산량이 많아 양식 어가들이 주로 택한다. 단점은 김발에 붙은 파래를 제거하려고 염산을 많이 사용해 생태계를 훼손시킨다는 점이다. 반면에 지주식은 친환경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이다. 얇은 수심

에 지주를 세우고 그물망을 지주에 끼워 양식한다. 조수 간만 차이로 김이 햇빛에 노출돼 광합성을 일으켜 고품질의 김을 생산할 수 있다. 단점은 생산량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는 지주식을 고집한다.

송상철은 낙지잡이도 한다. 육도 주변 갯벌에는 낙지가 많이 서식한다. 육도 낙지는 크고 실하면서도 부드러운 서울 노랑진 수산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그가 낙지잡이를 하는 배경에는 부친 영향도 컸다. 부친(송정환·76세)은 육도에서 소문 난 가래낙지 잡이 장인(匠人)이다. 목포에서 낙지 판매 가게를 낸 연우도 여기에 있다. 그는 부친과 달리 주로 햇(꽃)낙지 잡이를 한다. 금어기와 겨울철을 제외하면 월 600만원 가량 소득을 올린다.

송상철은 귀어인 생활 2년 만에 어업 활동에 손쉽게 착근했다. 김 식각 경력도 짧지만 작년에는 6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 금어기와 겨울철까지 합하면 연간 1억원이 넘는다. 직장생활과는 비교가 안되는 높은 소득이다. 그의 목표는 김 양식 규모를 늘려 연간 8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쓰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이기 때문이다.

송상철은 세 가지 꿈이 있다. 첫 번째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김 양식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어렵지 않은 꿈이다. 두 번째는 함께 양식이다. 신안에서는 주낙(낙시)을 이용해 낙지를 잡는 어민들이 많고, 이들은 참깨를 미끼로 사용한다. 논에서 참깨를 양식하면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 논리는 눈을 활용해 좋다. 50대가 되면 굴 양식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육도 인근 정청 바다를 이용해 초기 투자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수하식(垂下式)을 채택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젊은 어부 송상철은 귀어 찬성론자다. 현재의 어촌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약 3억원 정도 자본금으로 귀어하면 연간 1억원 정도 소득이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본인 노동력만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수익이 보장되는 곳이 어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걱정도 없지 않다. 인구 과소화로 학교를 비롯한 기초적인 인프라가 부족해 젊은 사람들이 귀어를 주저하는 상황이 계속 연착륙되기 때문이다.

전남 낙도(落島)에 송상철과 같은 젊은 어부들이 많이 나올 수는 없을까. 육도처럼 천혜의 수산자원을 보유한 전남의 수많은 낙도를 공도(空島)로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젊은 귀어인 송상철이 성공신화를 써야 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 두가지 부작용을 대비할 동물전담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어떤 정책을 하고자 한들 그 정책을 실현할 행정조직이 없는 불가능한 타산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동물관련 정책들은 무수히 공약되었으나, 제시한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동물전담기구가 반드시 선행적 요소임을 정부가 깨닫기 바란다.

결국 이 모든 동물관련 사회적 부조리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명존중의 문화의 부재라 할 것이다. 생명존중 문화가 국민적 정서로 자리하려면 '교육'만이 유일한 수단일 텐데,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윤리교육 또는 반려동물문화교육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그 결과 생명존중문화가 사회전반에 스며들다면,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농장동물 전동물 관련 동물 등 모든 동물관련 사회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제도 시행에 있어 여실 하 예견되는 두가지 부작용에 대한을 완벽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이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동물등록이 반드시 100% 완료되어야 된다는 것. 영구적으로 시작하는 이 제도가 중간에 실패했던 이유도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반려인들로부터의 불공정성 때문이었듯이 동물등록이 핵심적 사전작업인 것이다.

다른 부작용으로는, 현재 유기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당개들을 포함한 동물유기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거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기동물 13만마리의 현실에서

이번엔 트램, 광주시-의회 갈등 시민 우려 크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수소 트램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시장은 "예산은 시에서 편성하더라도 심의권은 시의회에 있는 만큼 결정을 존중한다"며 "충분한 공론, 공감,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확실히 했다.

시의회는 특히 "시의회에서 증액한 불요불급한 도로 예산은 수용하기 어려워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강 시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폭저예산 성격의 도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는 "예산심의권을 해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약 예산 삭감에 대한 분풀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트램(노면차) 설치 용역비, 일 또는 학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진로와 적성을 찾는 청년 겹이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바 있다. 강 시장은 "지하철과 트램을 혼동해 지하철 만들 돈도 없는 데 어떻게 트램을 짓느냐고 지적하기도 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자는 취지로 편성한 1

억원을 깎으면서 의견을 들으라고 하니 모순이라 생각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원팔이 잘려나간 느낌'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트램과 관련, 강 시장은 "지하철 1-2호선 사각지대인 농성역, 터미널, 야구장을 매우자는 공약을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1단계 2.5km, 2단계 국가 협의 등으로 구제했다"고 강변한다. 시의회는 건설 비용 뿐만 아니라 완공 후 운영에 대한 적자가 광주시 재정에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비가 당초 470억원에서 906억원으로 2배 가량 증액된 부산시 사례도 들었다.

앞서 정무장 의장은 제309회 임시회 개최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의회 권한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원활하지 못한 인사교류를 지적한 것이다. 강 시장이 의장과 의원들 전원에게 친서를 보내 소통을 약속하면서 수그러드는 듯 했으나 일주일 만에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시민들은 출발부터 흔들리는 민선8기를 근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한 전남의 무한 매력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남 일원이 새로운 여행지로 부상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왔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 등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7월과 올 7월 한 달간 집과 직장까지 모두 서울인 고객 결제 데이터 1억5천만 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여름 전남을 방문한 휴가객 수 증가율이 32.6%로 나타났다. 제주 37.4%, 강원 37%의 뒤를 이은 것으로 부산(24.2%)보다 월등히 앞선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여수는 KTX 이용이 가능해 교통이 편리해진다 장거리 기분을 내고 바다까지 즐길 수 있는 점으로 MZ세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진도는 대형 리조트 숲비치가 오픈한 이후 가족 단위로 몰리고 있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도 자녀 교육 등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사랑받는 중이다. 세대별로는 2030은 여수 등 특정 도시에 집중하는 성향을 보인 반면, 5060은 모든 시·군을 고루 방문하고 있다.

전남도는 2022-2023 방문의 해 1억명 관광객과 300만명의 외국인 유치로 문화관광 융

성 시대를 열었다며 체험형 관광을 위한 명품 숙박지와 인프라를 확충,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여행 코스로 떠올랐다. 이들은 인파로 북적이지 않으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가 좋고 이색적인 장소나 카페, 음식점 등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가성비와 휴양, 힐링과 들어맞은 섬으로 전남도가 최근 2022 소셜 아이 어워드에서 관광분야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3관왕을 수상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전통의 장자인 제주, 강원도의 인기와 비교해도 결코 손색이 없는 전남이다. 코로나 영향으로 곳곳에 숨겨진 매력적인 국내의 명소를 주목받는 가운데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대체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전남도는 아름다운 성과 해안 등 청정 환경을 중심으로 특화하고 자연경관 중심은 물론 콘텐츠 기반의 관광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한다. 전국에서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관광 거점으로서의 미래를 기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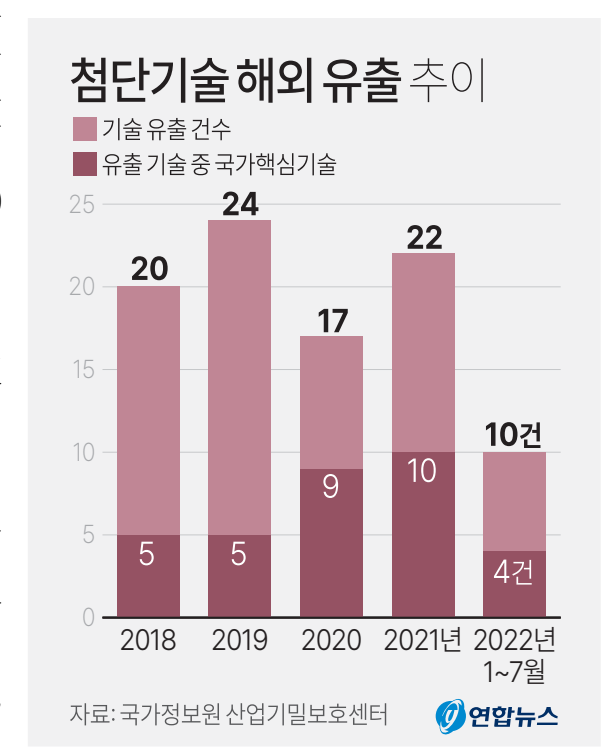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5년간 첨단기술 유출 83건...33건은 국가안보·경제 큰 영향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국가정보원, 특허청과 함께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권대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약진으로 무역 규모 8위의 강국이 됐다"며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연간 73조6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기술과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산하 기밀보호센터는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실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소개했다. 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적발된 첨단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모두 83건으로 이 중 33건(39.8%)은 국가안보와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례였다. 피해 집단별로는 중소기업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31건)과 대학·연구소(8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분야를 보면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정보통신 등 주력사업(69건)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건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실시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1(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기고



조경

광주여자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 겸임교수

반려동물보유세,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부조화 현상들, 즉 극심한 유기동물문제, 갈수록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빈번한 개몰림 사고, 길고양이와의 공생, 비반려인과의 주민간의 대립 같은 사회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동물전담행정기구를 만들거나,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막을 수 있는 공간과 예산을 확보해 유기동물보호소를 증설하거나 사설 동물보호소의 양성과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재정마련을 반려동물보유세를 포함하고 늦어도 2024년에는 연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가 최근에 그 조항을 삭제했다.

반려동물보유세란, 영국에서 1796년에 유기동물로 인한 광견병의 유행, 길거리 배변, 개몰림사고 등을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으로 출몰한 이후 1910년 반려동물등록을 완료한 독일을 기점으로 스웨덴 스웨덴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웨덴의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향후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조세제도로서, 반려동물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반려동물 인구확산에서 비롯한

고 층동적으로 분양을 주고받기 때문에 결국 반려동물 숫자와 비례해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반려동물보유세 도입까지 고민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 국민 55.6%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 유기동물이나 동물관련 사회문제들의 대부분의 원인을 반려인들이 대부분 제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려인들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동물문화 정착에 일조한다는 의미에서 동물권에서는 반려동물의 숫자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의 의미로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 시행에 있어 여실 하 예견되는 두가지 부작용에 대한을 완벽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이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동물등록이 반드시 100% 완료되어야 된다는 것. 영구적으로 시작하는 이 제도가 중간에 실패했던 이유도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반려인들로부터의 불공정성 때문이었듯이 동물등록이 핵심적 사전작업인 것이다.

다른 부작용으로는, 현재 유기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당개들을 포함한 동물유기

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거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기동물 13만마리의 현실에서

외의 선례를 통해 증명됐다. 미국에서는 1977년부터 화재경보기 설치율의 무화해 현재 90% 이상의 주택에 설치됐으며 의무화 후 사망자는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절에는 고향 집주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보자. 찾아보기 어려운 부모님·친척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온·오프라인 구매 가능한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해보자.

(채보승·담양소방서 옥과119안전센터)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기본에 충실해야

세상에 억울하고 딱한 사연이 어디 한 둘이겠느냐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만큼 억울하고 딱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다.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이거나 평생 모은 짬뽕을 빼앗긴 노인들이 대다수인이라 그 사연에 억장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지만 예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대응책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관공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인적사항 등을 전화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지정된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거나, 본인 소유 통장을 사기범들이 이용하려고 있으니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겨놓아야 안전하다는 식의 전화를 받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된다.

* 외무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